

지역축제의 지역경제활성화 영향 분석

김 성 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준비의 부족으로 낭비적이라는 부정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축제가 지역의 산업구조를 적절히 이용하였을 때 경제적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 전제하여 지역축제예산, 산업승수의 이용, 경제기반 산업 이용, 축제관광객 수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시에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축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독립변수를 조작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주제어: 지역축제, 지역경제, 로지스틱회귀분석]

I. 서론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급속하게 증가되기 시작했다. 문화관광부에 보고된 총 550여개의 축제 중 약 300여개의 축제가 1995년 이후 생성되어 개최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는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재선을 위한 최우선의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축제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무분별한 남발로 인해 프로그램의 유사성과 획일화, 내용의 질적 하락, 유행에 편승된 과시성 축제로 변모되어, 지역주민이나 방문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낭비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임학순, 1996; 김창곤, 2000; 박경귀, 2002). 축제의 준비과정에서 합리적인 목표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은 채, 오직 지역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방문객만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축제는 대부분 성공한 축제를 따라 하기에만 급급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채 결국 낭비적인 축제로 끝나게 된다.

한편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지역산업구조의 개선과 신규고용의 창출을 통해 지역의 생산성과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의 정주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그 지역 내 산업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홍준현, 1997).

그리고 지역의 경제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역 내 어떠한 산업을 이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주력산업선정방법론(Regional Industry Targeting Methodology)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축제는 지역산업구조의 개선과 신규고용창출을 기하는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반대로 지역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지역경제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산업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귀결된다. 즉 지역축제가 철저한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산업의 적절한 이용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편,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투입되는 새로운 생산활동이 미치는 직접효과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간접효과와 유발효과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권기철 역, 1997). 어떤 지역에서 지역축제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면, 그 효과가 지역축제에 투입되는 예산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효과에 의해서인지 간접효과 및 유발효과에 의해서인지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지역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지역산업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살펴보고 그 이용정도에 따라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서로 비교 분석 함으로서 지역축제의 목표인 지역경제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근거로 삼고자 한다.

II. 지역축제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

1.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현황

1) 지역축제의 개최지역별 현황

(1) 시·도별 분포

2004년 1월 기준 조사된 555개 지역축제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74개로 13.3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경상남도로 69개 1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60개로 전체 10.81%의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3개 도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는 203개로 우리나라 전체 지역축제의 36.5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1996년 7.3%인 33개의 지역축제에서 2배 이상 증가한 74개가 개최되고 있어 타도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역축제의 개최빈도는 시·도간에 편차가 커서 울산(9개, 1.62%), 광주(15개, 2.70%), 대전(8개, 1.44%), 대구(13개, 2.34%), 제주(15개, 2.70%), 인천(11개, 1.983%) 등은 축제가 늘고 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표 1〉 시도별 지역축제 분포

구 분	빈 도	%
서울	32	5.77
부산	44	7.93
대구	13	2.34
인천	11	1.98
광주	15	2.70
대전	8	1.44
울산	9	1.62
경기	60	10.81
강원	74	13.33
충북	35	6.31
충남	41	7.39
전북	32	5.77
전남	41	7.39
경북	56	10.09
경남	69	12.43
제주	15	2.70
총계	555	100.00

자료 : 문화관광부(2004) 재구성

(2) 자치단체 종류별 분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축제개최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시·도가 개최하는 지역축제가 20개로 3.6%에 불과한 반면, 일반시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는 207개(37.30%)이며, 군에서는 220개(39.5%), 자치구에서는 108개(19.4%)의 축제가 각각 개최되고 있어 전체의 96.4%인 절대 다수의 지역축제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개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96년과 비교해 볼 때에도 시·군에서 지역축제의 개최가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자치단체특성별 지역축제 분포

구분	1996		2004	
	빈 도	%	빈도	%
광역시/도	19	4.2	20	3.6
시	156	34.7	207	37.3
군	178	38.5	220	39.6
자치구	101	22.5	108	19.4
Total	449	100.0	555	100.0

자료 : 김선기(2003), 문화관광부(2004) 비교 재구성

<표 1>과 <표 2>에서 보듯이 특별시·광역시에 비해 도의 지역축제 개최가 많은 것은 농촌을

포함한 도가 자치단체수가 많기도 하거니와 도시에 비해 축제의 주제와 소재의 바탕을 이루는 역사성과 전통성이 클 뿐 아니라 축제의 주제와 내용을 구성하는 향토자산이 다양한데도 원인이 있다(김선기, 2003). 또한 특별시·광역시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를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2) 지역축제의 개최시기 별 현황

(1) 축제의 최초 개최연도별 분포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대부분 1950년대 이후부터 개최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4년 1월 기준 최초 개최연대가 불명확한 축제사례인 11개 축제를 제외하고 1949년 이전에 시작된 7개 축제를 제외하면 537개의 축제가 1950년대 이후 개최되어 온 축제이다.

〈표 3〉 지역축제의 최초 개최연도별 분류

시기구분	빈도	%	누적 %
1949년 이전	7	1.26	1.26
1950년~1959년	5	0.90	2.16
1960년~1969년	25	4.50	6.67
1970년~1979년	28	5.05	11.71
1980년~1989년	71	12.79	24.50
1990년~1999년	252	45.41	69.91
2000년 이후	156	28.11	98.02
No Data	11	1.98	100.00
총계	555	100.00	

자료 : 문화관광부(2004) 재구성

<표 3>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1950년대 이후 축제가 생겨나다가 1960년대 이후부터는 매년 두 자리 숫자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지역축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역축제의 최초 개최시기를 <표 3>과 같이 10년 단위로 분류해 보면 50년대 5개, 60년대는 25개, 70년대에는 28개, 80년대는 71개, 90년대 252개, 2000년 이후는 156개로 나타나 연대별로 누진적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5년 이후 새로 개최되기 시작한 지역축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수의 60%에 이르는 300여개로 나타나며 더욱이 1990년 이후에는 80%에 이르는 400여개의 축제가 개최되기 시작했다. 즉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축제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 축제의 계절별 개최시기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시기를 월별로 살펴보면 10월에 전체의 30.81%가 개최되고 있으며 5월에 14.77%, 4월에 10.99%, 9월에 9.37%로 각각 나타나 가을철(9월~10월)과 봄철(4월~5월)에 전

체 축제의 65.94%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지역축제의 개최시기별 분포

구분	빈도	%	누적%
1월	19	3.42	3.42
2월	25	4.50	7.93
3월	21	3.78	11.71
4월	61	10.99	22.70
5월	82	14.77	37.48
6월	21	3.78	41.26
7월	33	5.95	47.21
8월	45	8.11	55.32
9월	52	9.37	64.68
10월	171	30.81	95.50
11월	7	1.26	96.76
12월	11	1.98	98.74
기타1)	7	1.26	100.00
Total	555	100	

1) 일 년에 수회 개최되는 축제 및 개최 월 자료 미비 축제,
자료 : 문화관광부(2004) 재구성

대체로 전통축제들은 정월보름, 단오, 추석 등과 같은 전통명절의 부수적인 행사로 치루어져 왔으나 오늘날에는 관광이나 특산물 판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적 지역축제가 많이 늘어나면서 관광시즌인 10월에 상당수의 축제가 몰리고 있다. 지역축제를 타 분야와 연계시켜 장소관측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축제의 지나친 계절적 집중성으로 인해 유사축제간 과다 경쟁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축제의 관광 비수기에 대한 대체효과는 미흡하다 할 수 있다(김선기, 2003).

3) 예산 규모별 지역축제 현황

축제예산은 축제의 외형적 규모는 물론 축제의 내면적 질을 판단하는 준거가 된다. 실제로 지역축제의 개최예산을 보면 작게는 천만 원의 규모에서부터 백 억 원에 이르는 규모까지 매우 다양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영세한 규모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억 원 이하가 320개로 57.7%에 해당하는 지역축제가 영세한 예산으로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1996년의 68.5%와 비교해 볼 때는 지역축제의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3억 원 이상의 축제는 98개로 17.6%를 차지하고 있어 1996년 8.7%에 비해 축제 예산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 종류별로 축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50%가 넘는 11개의 축제가 5억이상의 지역축제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예산이 비교적 많이 투입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

치구의 경우 축제의 75%인 81개의 축제가 1억 원 미만의 예산규모로 개최되고 있으며 군의 경우도 전체 220개 축제 중 약 68%에 해당하는 128개 지역축제가 1억 원 미만의 예산이 투입되는 소규모 축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5〉 자치단체의 종류별 축제예산 규모

구분	1억이하	1억~2억	2억~3억	3억~4억	4억~5억	5억초과	계
광역시/도		1	4	3	1	11	20
시	111	36	14	13	9	24	207
군	128	34	27	14	9	8	220
자치구	81	15	6	5	1		108
계	(57.7)320	(15.5)86	(9.2)51	(6.3)35	(3.6)20	(7.7)43	555

자료 : 문화관광부(2004) 재구성

2.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

Gets(1991)에 의하면 지역축제는 많은 부문에서 관광업과 유사한 형태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지역축제로 인해 관람객이 유입되면 관람객의 지출효과와 지역의 소득증가효과, 축제 개최에 필요한 각종 지출을 통한 고용효과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관람객의 지출과 문화축제에 대한 투자는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효과, 고용효과, 연관 산업 파급효과 등을 유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관람객 지출뿐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서 지역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건설비, 운영비, 관련 공공사업비의 지출, 관련 민간 설비투자 등으로 인해서도 생산유발효과가 발생된다(고속희, 2000).

고속희(2000)는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의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 파급효과 분석에서 문화행사를 하나의 생산 활동으로 보고 그것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 확보에 기여하는지 분석하였다. 하지만 단기적 분석이어서 지방재정 중 지방세수입에 대한 기여도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따른 일반회계에 대해 변화가 있는 것을 설명하였다.

지역에서 개최하는 산업박람회전이나 전문전시회 등은 지역의 홍보는 물론 지역산업발전에 많은 파급효과를 주게 된다. 지역특산물인 인삼을 주제로 한 ‘금산인삼제’는 1997년의 경우 약 4억 원의 행사비를 들여 177억 원의 지역소득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이천도자기 축제는 1997년 도자기 전시판매 부문에서만 38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지역축제의 특화산업 육성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된 지역축제 이벤트 관광을 의도적으로 새롭게 개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춘천시가 1997년 ‘춘천만화축제’를 개최하고, ‘영상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가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를 개최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김병철,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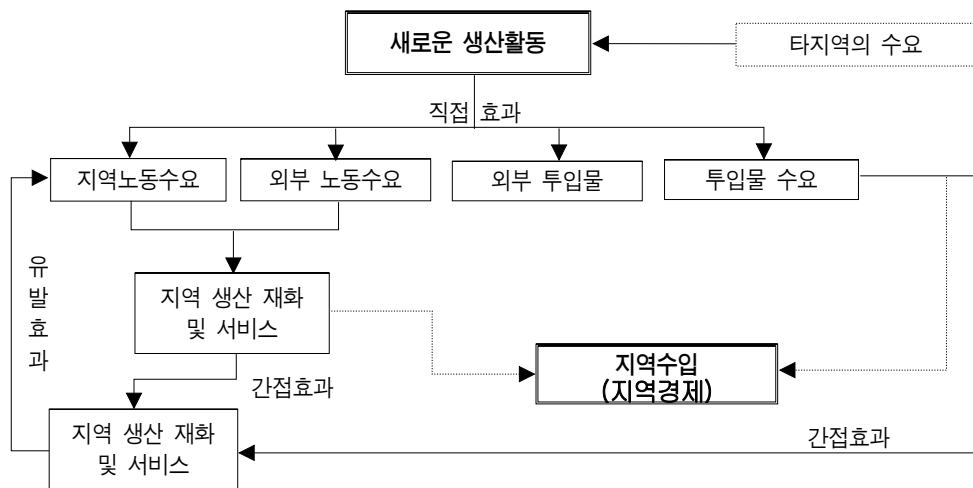
한편 지역축제는 비수기 타개책으로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역축제의 개최를 통하여 관광성수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관광시즌을 창출해 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양강 상류의 얼음 빙판 밑에 서식하는 빙어를 소재로 인제군이 개최한 인제빙어축제의 경우 참가인원 289,000명으로 숙박, 농수특산물 판매 등을 포함하여 약 28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인제빙어축제위원회, 2000).

3.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

1) 지역경제활성화와 측정수단

지역경제 활성화란 지역 내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순환법칙에 따라 수행하는 생산, 소비, 투자 활동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서 지역총생산의 구성요소가 된다(전도일, 2003). 따라서 지역경제의 분석은 소득과 고용의 변동을 근본요인으로 하고 있다. 이 소득과 고용의 변동 원인을 모델화 하여 지역 간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지역에서 소득과 고용의 결정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지역경제 모델의 중심에는, 기업과 가계 등의 경제주체 사이에는 투입-산출의 연관을 통해 내적 피드백이 발생한다는 개념이 들어 있다. 즉 기업은 판매하고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다른 기업과 연관되어 있다. 가계는 기업에 노동서비스를 판매하고 재화를 구매한다. 이러한 연관은 지역 내에서도 일어나고 지역 간에도 일어난다(권기철 역, 1997).

〈그림 1〉 새로운 생산활동이 지역수입에 미치는 영향



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란 지역총생산의 구성요소의 활동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지역총생산이란 무엇인가? 지역총생산(GRP: gross regional product)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주민의 총소득을 총계한 것을 뜻한다. 즉 지역총생산은 지역주민들이 일정기간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합계 또는 부가가치의 합계를 말한다. 즉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기간 모든 투입산출과정을 거쳐 발생한 최종 생산물인 것이다. 소득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발생한 소득이 어느 지역에 귀착되는가가 문제이다. 따라서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에서 타 지역 주민들에 귀속되는 소득을 제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에서 올린 소득을 합한 것을 지역총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력을 지역의 경제적 능력이라고 정의 한다면 지역총생산이 바로 지역경제력을 가늠하는 잣대라 할 수 있다. 지역총생산은 생산과 유통 및 소비의 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재화와 용역의 총부가가치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내총생산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최종생산물의 합계를 의미하며 지역 내 생산된 것이면 지역주민에게 귀속하는 것이든지, 타지역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든지 관계없이 포함된다(김기홍 외, 1996).

지역총생산은 최소한의 자원을 지역의 한정된 공간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일체의 경제활동, 즉 생산, 소비, 교환, 분배 등에 의해 창출되는 관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서 활용할 수 있지만 지역총생산은 지역수준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역의 순수취요소소득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라는 특성으로 지역내총생산으로 대체 할 수 있으나, 지역내총생산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만 측정되며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는 측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경제활성화를 측정하기 위해 몇몇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완벽하게 지역경제활성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조사 가능한 자료 중에서 연구목적에 적합한 척도를 선택해야 한다. 한편 지역경제의 분석은 소득과 고용의 변동을 근본요인으로 하고 있다(권기철 역, 1997). 이러한 자료로서 고용 또는 산업체 종사자 수 및 수입(임금)을 대표적으로 사용한다(Klosterman, 1990).

고용 또는 산업체 종사자수는 오래전부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로서 매년 공신력 있는 정부에서 발표 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산업체 종사자 수 척도는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도 정규직 고용자처럼 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반대로 시간제 근무자가 밤과 낮으로 각각 일하게 되면 두 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계절에 따른 고용자는 일 년 중 한시적으로 고용되고 있을 뿐이지만 이 역시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경제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산업체 종사자 수는 경제적 활동을 불완전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된다(Klosterman, 1990).

한편 임금은 매력 있는 척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동시간에 따라 시간제 근무자와 정규근무자간 또한 계절 고용자간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고 이를 데이터로서 보여준다. 즉 일 년에 5

천만 원의 임금을 받는 한 명은 2천5백만 원의 임금을 받는 두 명과 비교할 때 지역서비스 및 재화의 소비가 같을 것이다. 그러나 2천5백만 원의 임금을 받는 열 명과 2억5천만 원 임금을 받는 한 명과는 전체적인 임금은 같지만 그 소비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다. 즉 연간 2억5천만 원을 버는 소득자는 일반적으로 더 많이 저축하고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Klosterman, 1990).

정리하면 고용은 경제기회를 측정한다. 즉 주어진 경제활성화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잠재적 수라 할 수 있다. 임금은 직업이 창출된 후 기되 되는 삶의 표준을 반영한다. 두 가지 척도는 각각 중요하지만 또한 각각 모든 것을 충족하는 자료는 아니다(Kolsterman, 1990).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로서 공개되는 자료는 산업체 종사자 수이다. 임금의 경우 자료로서 조사되고 있지 않다.

2)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 방법의 의미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의미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지역총생산이 아쉽게도 지역수준에서는 측정이 안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산업고용자 수와 임금이 대체되고 있고 있음을 설명 하였다. 한편 지역의 경제활성화 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이외에 수요에 중점을 둔 접근방법인 지역경제성장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수요에 중점을 둔 접근방법인 경제적 효과분석방법으로 크게 투입산출분석(Input - Output Analysis)과 경제기반분석(Economic Base Technique)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Armstrong & Taylor, 1983; 이강욱, 1997; 조병훈, 2000에서 재인용). 이들 분석방법의 공통점은 승수효과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입산출분석은 산업 간의 경제효과분석에 초점을 둔 반면에 경제기반모형은 거시계량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다.

(1) 투입산출에 의한 산업승수효과 분석

투입산출분석은 수출증대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 혹은 지역경제 성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경제기반이론과 달리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해 주는 분석기법이다.

이러한 투입산출 분석에는 생산능력의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지역 간의 피드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지역경제가 생산능력의 제약에 직면하면 승수효과가 지역소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산자들이 산출량을 늘리기보다는 가격을 인상하여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초과 작업 부분을 타 지역에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은 단기적인 상황이고 장기적일 때는 지역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 증가를 유발 한다. 그리고 지역 간의 피드백 효과를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소득의 증가는 수입의 증가를 유발하지만, 이 수입이 지역 내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러한 지역 간 피드백 효과가 산업연관 효과에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권기철 역, 1997).

투입산출 분석에는 산업연관분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단위지역경제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산업연관표는 경제 규모의 확대와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계발계획수립의 기초자료 및 제반 경제정책 입안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작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 자료역시 광역수준 또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산업연관표는 작성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각 지역의 산업연관표는 양비례조정법(RAS Method),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 Method), 가중치조정법(Weighting Method)등의 방법에 의해 지역의 산업연관표를 조정한다.

(2) 경제기반산업 분석

이 경제기반 기술 분석은 지역경제분석 기법 중 가장 오래되고 간단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 기법은 1920년대 도시계획자들에게 의해 제안되고 1930년대 Homer Hoy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후 1950년대 케인즈 경제학자들의 의해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되었다. 여러 도시의 경제적 발전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시경제성과를 단순화시킨 모델이다(Klosterman, 1990).

경제기반모형은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들의 파악과 기반산업들의 생산 활동으로부터 지역경제의 총량규모를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의 의미는 외부지역과의 시장경쟁에서 열세적, 우세적 산업들, 즉 지역산업구조의 파악과 지역내 산업들의 생산 활동에 의한 공간경제의 수지균형의 평가 그리고 기존산업들의 확장과 새로운 산업들의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의 평가에 있다(김기홍 외, 1995).

한편 경제기반이론의 유용성은 지역단위 산업의 기반부문과 비기반부문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반산업을 측정하는 데에는 가정법적 접근방법(Assumption Approach), 입지적 접근방법(Location Quotient Approach), 최소요구량 접근 방법(Minimum Requirements Approach)등을 사용한다.

4. 지역축제와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1) 축제예산

새로운 생산 활동의 영향은 지역안의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거나 지역간 피드백을 통해 또 다른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승수과정은 최초의 주입(새로운 생산 활동)이 지역경제 전체에 그 효과를 완전히 파급시킬 때까지 계속된다. 이점에서 지역축제를 새로운 생산 활동이라 했을 때, 최초의 주입이 축제 예산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계속적인 물량의 투입 즉 무한정한 예산의 투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결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규모 물량을 투입하기엔 자본의 부족 등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2) 산업승수효과 이용

산업승수효과 이용이란 축제로 인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유발효과와 간접효과라 할 수 있다. 지역축제는 행사경비를 통해 지역경제로 유입된 여러 형태의 소비증가를 일으키고 지역 해당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의 증대뿐만 아니라 연관된 다른 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킨다. 이러한 생산과 부가가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자원 즉 이러한 승수효과는 위에서 설명한 산업연관모형에서 생산유발계수로서 표현된다. 그러므로 지역축제 예산을 산업분류별로 구분하여 각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에 대입한다면 산업승수효과 이용정도인 지역 내 유발효과와 간접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산업승수효과의 이용은 지역 간의 피드백 효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내의 산업구조 이용이라 할 수 있다. 조병훈(2000)의 「1998 경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분석」, 고숙희(2000)의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의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 파급효과 분석」 등과 같이 현재 지역 축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산업연관 모형을 많이 쓰고 있다.

3) 경제기반산업 이용

경제기반산업 이용이란 지역축제의 예산이 지역경제 안에 투입되어 발생하는 유발효과와 간접효과와는 달리 지역 간 피드백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경제효과라 할 수 있다. 경제기반 모형이란 위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간접효과와 유발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산업구조의 활용성과는 달리 지역의 기반산업의 비율에 따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경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지역의 기반산업은 지역 밖으로 수출함으로써 지역 안으로 돈을 유입되게 만들고 이러한 유입된 돈은 지역경제 안에서 약간 남게 되고 비기반 산업부분에서 새로운 재화와 용역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Klosterman, 1990). 이를 측정하기 위해선 지역의 기반산업비율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경제기반산업 이용은 산업승수효과 이용과는 달리 지역 간 경쟁우위 산업을 이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력산업선정하는 방법에서 지역적합도 분석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다(홍준현, 1997).

4) 축제 관람객 수

지역축제의 목표는 축제의 활성화이다. 그리고 지역축제의 성공여부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척도는 지역축제에 참가한 관람객 수로서 표현된다. 축제에 참가한 관람객의 소비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축제에 참가한 관람객의 소비로 지출된 금액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투입요소로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단양군의 문화축제로 인해 지출된 내역을 보면 지역축제행사 지출비에 비해 관람객의 소비로 인한 지출 총액이 약 세배에 달하고 있다(고숙희, 1999). 이러한 관람객이 지역축제에 방문 시 지출하는 입장료, 숙박비, 교통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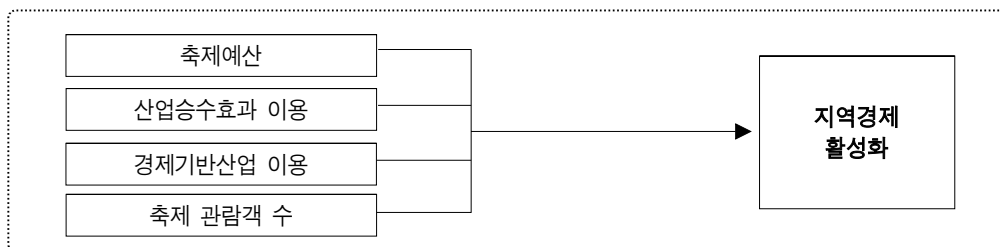
관광 상품의 구매 등의 비용이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나타나게 되며 해당 지역에 고용창출 등의 산업연관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이희욱, 2001).

Ⅲ. 분석모형과 조사설계

1. 분석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설명하기 위한 척도를 찾아야 했다. GRP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설명할 수 있는 척도이나 지역수준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GRDP 역시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측정이 가능하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완전하지만 경제활동인구인 산업체 종사자 수를 분석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현민(1992)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성장의 원인을 추적하였는데 산업부문별 고용성장을 즉 산업체 종사자 수의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함으로서 고용의 성장을 지역성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림 2〉 지역경제활성화분석을 위한 개념적 분석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지역축제의 역할은 크게 <그림 2>와 같이 네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역축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으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이다. 지역축제 예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초가 되는 유발효과와 간접효과를 발생시키는 원동력이 되며, 해당지역의 기반산업에 투입되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축제 예산이다. 두 번째는 지역축제 예산이 지역경제에 투입되어 발휘되는 유발효과와 간접효과이다. 같은 예산이 투입되어도 지역의 경제구조에 따라 이 유발효과와 간접효과는 차이를 보일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지역경제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하는 지역축제로 인해 발생하는 유발효과와 간접효과가 산업승수효과 이용이다. 세 번째는 지역의 입지요건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경제기반 산업 이용이다. 이 역시 같은 예산이 지역경제에 투입되더라도 그 기반산업의 구조에 따라 그 이용정도는

다를 것이다. 그 원인은 지역경제활성화 측정을 위한 경제기반모형에서 기반산업이 지역경제 성장의 주된 이유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기반산업에 의해 유입된 자금은 지역경제 안에서 약간 남게 되고 남게 된 자금은 비 기반 산업부분에서 새로운 재화와 용역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Kolsterman, 1990).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축제에 참가하는 관람객 수라 할 수 있다. 관람객은 지역축제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 이외에 지역경제에 투입되는 새로운 창출 요인으로서 지역축제 자체의 성공을 위한 대상이 된다.

2. 연구의 분석단위와 표본추출

본 연구에서 분석단위는 지역축제 자체와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두 부분의 분석단위는 지역경제활성화의 원인이 되는 지역축제와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서 두 부분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즉 지역축제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분석단위가 된다.

우선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규정할 수 있다. 우선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였다. 이는 지역축제를 주최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표본의 수에서도 부족하고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자치구 및 시 주관의 지역축제는 제외하였다. 지역축제가 갖는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치구 및 시는 기존의 산업이 발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치구는 광역시라는 대규모 도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타 지역과의 빈번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지역축제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라기 보다는 도시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의한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시 또한 지역 내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이유로 지역축제의 영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통제해야 할 변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되도록 인구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등이 비슷한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즉 그 지역의 인구나 예산이 특별히 많은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이유가 지역축제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인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설정 후 그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의 특성에 따라 최종적인 선택을 하였다. 우선 지역축제의 추진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기관이나 주관기관일 경우로 한정하고 산하기관 및 문화원, 민간방송국 등이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는 제외하였다. 또한 지역축제 예산규모도 미미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1억 원 이상의 예산규모인 지역축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의 기준에 따른 표본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역축제를 일 년에 1회 이상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였다. 표본추출을 위해서 2004년 1월 기준의 문화관광부 자료 「2004년 시·도별 축제 개최 현황」을 이용하였다.¹⁾ 이를 기준으로 할 때 2001년과 2002년

1)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2001년과 2002년간의 지역축제 효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같은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

각각 1회 이상의 지역축제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83개 지역이었다. 그리고 83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는 총 220여개이다. 그리고 지역축제 예산규모가 미미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1억 원 이상의 예산규모인 지역축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²⁾ 83개 지역 중 지역축제의 예산규모가 1억 원 이상인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지역은 61개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목적은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료는 2차 자료이며 특히 변수의 특성상 지역축제 예산의 세부적인 사용내역이 필요하다. 지역축제 예산의 특성상 특정지역의 담당자가 축제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한편 특정지역의 경우 1억이 넘는 지역축제가 2개 이상 개최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천재지변으로 인해 그해에 지역축제가 취소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인구를 통제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군단위로 한정하되 시간적 연구범위인 2001년 2002년 기준 내·외국인 주민등록인구가 10만이 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 자료를 얻지 못하거나 축제가 취소된 경우 지역의 인구가 10만이 넘는 경우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분석대상이 된 지역은 18개 지역이었다.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이 된 18개 지역은 연구대상으로 하기엔 그 숫자에 있어서 작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러한 표본숫자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자료와 2002년 자료를 통합한 데이터로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각각의 연도별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 년 단위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분석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지역경제활성화 변수

종속변수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지역경제활성화란 지역 내 경제순환법칙에 따라 수행하는 생산, 소비, 투자활동 등 지역총생산의 구성요소라 하였다(전도일, 2003).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GRP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수준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김기홍 외, 1996). 지역의 지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작다면 GRDP를 척도로 할 수 있겠으나 GRDP 역시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만 측정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기초자치단체범위에서는 측정이 안 되고 있다. 한편 지역 경제 분석 중 경제기반모델에서 불완전하지만 경제활동인구인 산업체 종사자 수를 분석 단위로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로 표본을 추출해야 하나 이 시기의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2) 2004년 문화관광부 축제현황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축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1억 원 기준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시간적 범위인 2001년 및 2002년에는 축제예산이 1억 미만일 경우가 발생하였다.

(Kolsterman, 1990). 김헌민(1992)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성장의 원인을 추적하였는데 산업부문별 고용성장을 즉 산업체 종사자 수의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함으로서 고용의 성장을 지역성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측정하기 위해 지역축제의 시작 전과 시작 후의 산업체 종사자수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2) 축제예산

지역경제에는 경제주체 사이에 투입-산출의 연관을 통한 내적 피드백이 발생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이론적 고찰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즉 새로운 생산활동의 영향은 지역의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기도 하며 지역 간 피드백 효과로 인해 또 다른 영향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승수과정은 최초의 투입(새로운 생산활동)이 지역경제 전체에 그 효과를 완전히 파급시킬 때까지 계속된다. 이점에서 지역축제를 새로운 생산 활동이라 했을 때, 최초의 투입요소가 축제 예산인 것이다. 그러나 축제 예산 모두가 지역경제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벤트 대행비나 지역외의 상인수입으로 누출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축제 예산에서 지역 외로 누출되는 예산이 제외되어야 하나, 경제기반산업 이용 및 산업승수 효과 이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대입하여 측정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외 누출액은 제외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순 투입예산과 누출액을 따로 계산해 변수로서 활용하기 보다는 전체 투입예산을 독립변수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경제활성화하기 위한 최초투입인 축제예산은 그 자체가 하나의 변수가 된다.

(3) 산업승수효과 이용

지역경제활성화를 측정하는 수단의 의미를 살펴볼 때 간접효과와 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을 최대한 이용하는 가의 유무에 달려 있다. 고숙희(1999)의 단양온달문화축제분석과 조병훈(2000)의 1998 경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분석 등과 같이 현재 산업연관 모형은 지역 축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여 지고 있다. 산업연관 모형은 지역산업의 승수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투입자본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달리하면 지역의 산업연관 모형에 근거하여 축제예산을 지출할 때 충분히 산업연관모형의 유발계수를 이용한다면 최대한의 유발효과와 간접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지역산업구조의 활용성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간접효과와 유발효과를 수치로 나타내는 승수효과분석을 이용한 산업연관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산업구조에 따른 산업승수효과 이용 척도는 생산유발계수의 활용도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산유발계수가 척도로서 나타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생산유발계수는 단순히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된 산업에 축제예산이 쓰인다는 가정 하에 축제행사비용 즉 예산의 사용을 산업별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이후 (수식 1)과 같이 구분된 산업별 예산을 각 산업별 생산유발계수와 곱

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합하여 나온 액수를 측정값으로 할 수 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부분은 당해연도 축제예산의 유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선 이전연도의 생산유발계수를 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2001년의 산업승수효과이용은 2000년도 생산유발계수를 대입해야 하며 2002년도 산업승수효과 이용은 2001년도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연관모형의 경우 5년마다 작성이 되며 2000년 자료가 최근 자료이므로 2001년과 2002년 모두 같은 생산유발계수가 이용되었다.

$$\text{산업승수효과 이용도} = \sum(LC_i \times FB_i) \quad (\text{수식 1})$$

LC_i = i 산업의 지역생산유발 계수

FB_i = i 산업에 들어간 지역축제 예산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같은 축제예산일지라도 산업별 생산유발계수에 따라 측정된 값은 각각 차이를 보일 것이다. 다만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분석 시 이전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관람객의 소비를 기초로 하는 유발효과는 제외하였다. 이는 관람객의 수가 변수로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분석에 앞서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축제로 인해 각 지역으로 유입되는 총액수를 산업연관표의 산업별 분류방법에 따라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벤트회사에 지급된 비용 및 일부 연예인 및 사회자의 출연료 등은 지역 안의 다른 산업에 생산과급효과 및 부가가치과급효과를 내지 못하고, 업무추진비 및 인건비는 지출명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별 분류에서는 제외하였다(고숙희, 1999).

〈표 6〉 전국대비 지역산업연관모형 구축 방법

구분	전국(1995) ¹⁾	충북(1995) ²⁾	전국대비 충북 생산유발계수비(1995)
농림수산업	1.6693	1.7640	1.0567
광업	1.4845	1.2290	0.8279
음식료법	2.1519	2.2920	1.0651
섬유및 가죽	2.2121	2.0450	0.9245
종이나무제품	2.0531	1.7450	0.8499
화학제품	2.1727	2.3950	1.1023
석유석탄	1.8811	1.6700	0.8878
요업토석제품	1.9508	1.9350	0.9919
제 1차금속	2.4055	1.6550	0.6880
금속제품	2.1541	1.6150	0.7497
일반기계	2.0000	1.7260	0.8630

(다음 쪽에 계속)

〈표 6〉 전국대비 지역산업연관모형 구축 방법

구 분	전국(1995) ¹⁾	충북(1995) ²⁾	전국대비 충북 생산유발계수비(1995)
전기전자기계	1.9560	2.3160	1.1840
정밀기기	1.8667	1.4400	0.7714
수송기계	1.8338	1.2210	0.6658
기타제조업	1.8241	1.7140	0.9396
전력, 가스, 수도	1.7168	1.2410	0.7229
건설	1.9099	1.7380	0.9100
도소매	1.3937	1.1920	0.8553
운수 및 보관	1.6851	1.4660	0.8700
통신	1.2171	1.1250	0.9244
금융 및 보험	1.3718	1.2250	0.893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3810	1.2600	0.9124
공공행정 및 국방	1.7729	1.6070	0.9064
교육 및 보건	1.3699	1.2530	0.9147
사회 및 개인서비스	1.5201	1.2870	0.8467

* 1), 2) 홍순영·김갑성(1995) 자료 참조

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두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우선 생산유발계수를 나타내주는 산업연관표는 5년마다 한국은행에서 작성되고 있으며 최근 자료는 2000년 기준 자료이다. 그러나 이 산업연관표는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연관표일 뿐이지 지역으로 분리해서 작성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추정하여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조정하는 방법은 RAS방법, 입지계수법, 가중치에 의한 조정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 6>과 같이 홍순영·김갑성(1995)의 지자체별 입지계수법에 의한 각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였다. <표 6>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각 지역의 산업별 생산유발계수와의 비율을 2000년 산업연관표에 대비함으로써 현 지역의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수식 2)와 같다.

$$LC_i^{2000} = \frac{LC_i^{1995}}{NC_i^{1995}} \times NC_i^{2000} \quad (\text{수식 2})$$

LC_i^{2000} = 2000년도 지역의 추정 i산업 생산유발계수

NC_i^{2000} = 2000년도 광역지역의 i산업 생산유발계수

LC_i^{1995} = 1995년도 지역의 추정 i산업 생산유발계수

NC_i^{1995} = 1995년도 광역지역의 i산업 생산유발계수

한국은행에서 작성되고 있는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와 표준산업분류와는 약간의 차이가 존

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축제예산의 산업별 분류이전에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에 따라 재구성하는 방법과 현 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산업연관표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 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산업연관표를 작성한 기준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작성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구축 및 분석”의 예를 참고하였다. 즉 산업연관표의 77개 산업분류 코드의 유발계수를 표준산업 중분류 코드 80개 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25개 산업분류로 가 조정함으로써 전국대비 생산유발계수를 추정하였다.

(4) 경제기반산업의 이용

경제기반 산업 이용은 위의 산업 유발효과 이용과 의미를 같이 한다. 다만 간접효과와 유발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산업구조의 활용성과는 달리 지역의 기반산업의 비율에 따라 어떻게 경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지역경제활성화 측정을 위한 경제기반모형에서 기반산업이 지역경제성장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지역의 기반산업은 재화 및 서비스를 지역 밖으로 수출함으로써 지역 안으로 자본을 유입되게 만들고 이러한 유입된 자본은 지역

〈표 7〉 경제기반 산업 이용도 측정 방법

구 분	전라남도 산업인구 (t-1년도)	지자체 산업인구 (t-1년도)	LQ (t-1년도)	t년도 추제예산 (천원)	경제기반산 업활용 (LQ×예산)
농업 및 임업	3012	111	1.90	0	0
어업	3463	3	0.04	10000	447
광업	4006	33	0.42	0	0
제조업	90145	1159	0.66	109847	72822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3852	120	1.61	16665	26769
건설업	23315	469	1.04	34001	35267
도매 및 소매업	85647	1786	1.08	49461	53182
숙박 및 음식점업	64057	1356	1.09	32068	35003
운수업	28511	351	0.63	52427	33280
통신업	6316	137	1.12	5300	5928
금융 및 보험업	23904	565	1.22	1634	1991
부동산 및 임대업	6510	45	0.36	11760	4192
사업서비스업	13489	82	0.31	2693	8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9380	956	1.68	7000	11745
교육 서비스업	43432	1061	1.26	0	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158	408	1.10	0	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0135	158	0.80	78201	62861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3318	735	1.14	475	540
계	491650	9535	17.46	411532	344871

* 위의 표에선 대분류별 LQ값과 편성된 예산을 곱함으로써 경제기반산업이용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분류(62)별 LQ값과 편성된 예산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경제 안에서 비기반 산업부분의 새로운 재화와 용역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Klosterman, 1990).

경제기반모형 분석에서는 기반산업종사자와 총 산업종사자의 비율인 BM으로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 척도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BM 산업분류별 비율이 아니라 전체 지역산업의 기반산업 비율이기 때문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지역간 피드백 효과를 측정한다는 목적 하에 ‘입지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계산되는 LQ값을 이용하여 산업이용도를 측정하였다. LQ값은 (수식 3)과 같이 측정할 수 있다. (수식 3)에서 LQ값은 그 지역의 전체산업 대비 해당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지역의 해당산업 비율과의 비교 값이다. 이렇듯 각각의 산업에 따른 LQ값에 투입된 금액을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경제기반산업 이용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관련 (수식 4)와 같이 지역축제 행사비용을 산업별로 분류하여 각 산업별 LQ값과 곱한 값들의 합을 경제기반산업 이용 척도로 사용하였다.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이때에 입지적 접근방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분류별 종사자수와 광역자치단체 산업별 종사자수와 비교하여 얻어진 값이 필요하다.

$$LQ_i^t = \frac{e_i^t}{e_T^t} \div \frac{E_i^t}{E_T^t} \quad (\text{수식 3})$$

LQ_i^t = t년도 i산업의 LQ 값

e_i^t = t년도 지역의 i산업 종사자 수

e_T^t = t년도 지역의 전체 종사자 수

E_i^t = t년도 광역지역의 i산업 종사자 수

E_T^t = t년도 광역지역의 총 종사자 수

$$t\text{년도 경제기반산업 이용도} = \sum(LQ_i^{t-1} \times FB_i^t) \quad (\text{수식 4})$$

LQ_i^{t-1} = t-1년도에 i 산업의 LQ값

FB_i^t = t년도의 i 산업에 들어간 지역축제 예산

그러나 (수식 4)에서 보듯이 당해연도 경제기반산업 이용도를 측정하기 위해선 이전 연도의 LQ값을 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2001년의 경제기반산업 이용도는 2000년도 산업구조의 LQ값을 대입해야 하며 2002년도 경제기반산업 이용도는 2001년도 산업구조의 LQ값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유는 축제가 열린 그해의 산업구조는 지역축제에 의해 변화가 일어났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이다. 즉 이전 연도의 산업구조가 지역축제에 의해 당해연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이다.

(5) 지역축제 참가자 수

지역경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전략은 축제에 참가하는 관람객 수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지역축제에 참가한 관람객의 소비로 지출된 금액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투입요소로서 작용한다. 단양군의 문화축제로 인해 지출된 내역을 보면 지역축제행사 지출비에 비해 관람객의 소비로 인한 지출 총액이 약 세배에 달하고 있다(고숙희, 1999). 이러한 관람객이 지역 축제에 방문 시 지출하는 입장료, 숙박비, 교통비, 관광 상품의 구매 등의 비용이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나타나게 되며 해당 지역에 고용창출 등의 산업연관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이희욱, 2001). Gets(1991)의 분석에 의하면 지역축제는 많은 부문에서 관광업과 유사한 형태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그 중심에는 지역축제로 인해 관람객이 유입되고 관람객의 지출효과와 지역의 소득증가효과, 축제개최에 필요한 각종지출을 통한 고용효과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람객 개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산정하기란 불가능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축제기간에 참가하는 관람객을 상대로 한 설문에 근거하여 관람객 개개인의 지출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본 연구의 특성상 각 축제마다 관람객 개개인의 지출을 추정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관람객 개개인의 지출이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으로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표 8〉 경제활성화 관련 변수의 조작화

변수	측정방법	척도
지역경제활성화	산업체 종사자수의 변화= 당해년도 지역산업종사자수 - 전해년도 지역산업종사자수	
축제예산	지역축제에 진행에 배정되어 투입되는 예산	비율척도
산업구조의 활용성	(지역별 산업분류 유발계수 × 생산자 기준의 산업분류별 적용예산)의 총합	비율척도
산업입지의 활용성	(산업분류별 LQ × 산업분류별 적용예산)의 총합	비율척도
축제관람객	축제기간에 참가하는 관람객 수	비율척도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축제예산의 사용내역을 통해 도출된 독립변수들로 인해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독립변수들간의 독립성과 잔차간의 독립성을 가정으로 하는 선형회귀분석방법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로 인해 이에 대한 가정이 없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의 성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성장이 S자 곡선을 따른다는 가정이 있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합하다. 다만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범주형 종속변수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율척도로 측정되어진 종속변수를 비율척도가 지닌 정보를 손실함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으로 분류해야만 했다. 즉 경제적 효과가 큰 집단과 경제적

효과가 적은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K-means 군집분석방법에 의해 분류하였다.

IV.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1.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한계를 이유로 2001년과 2002년간의 자료를 통합해 사용했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즉 각각의 연도별 변수 간 관계를 통합해봄으로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통합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두 해 기간 동안의 경제활성화 정도를 측정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다만 두 해 기간 동안의 자료를 통합한다는 이유로 자기상관 또는 계열상관(Auto correlation or serial correl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가 계속적인 시계열 자료가 아닌 2년간의 독립된 자료란 점과 독립변수의 수치는 이전 년도부터 지역에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수치가 아니라 새롭게 투입되는 수치란 점, 또한 종속변수의 경우 전체적인 산업체 종사자 수의 변화란 점에서 이전년도의 통계치를 제거하기 때문에 잔차 간의 상관관계인 자기상관의 문제가 최소화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잔차 간의 정규성이나 등분산성 가정을 두지 않으므로 자기상관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표본의 한계이외에 본 연구의 특성상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산업체 종사자 수 변화의 분류

Observed	Predicted		
	Cluster Number of Case		Percentage Correct
	1	2	
Cluster Number of Case	1	2	
	1	0	100.0
	2	0	.0
Overall Percentage			61.8

a Constant is included in the model.

b The cut value is .500

〈표 10〉 Hosmer and Lemeshow의 모형 적합도 검정 결과

Step	Chi-square	df	Sig.
1	4.096	8	.848

우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산업체 종사자 수의 변화를 두 집단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산업체 종사자 수의 변화를 K-means 군집분석 방법에 의해 산업체 종사자 수의 변화가 큰 집단과 작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때 나누어진 집단의 분류는 <표 9>와 같다. 한편 앞의 내용에서와 같이 독립변수들의 척도가 큰 이유로 인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값이 작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기 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변수를 표준화시킨 후 분석을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살펴보면 <표 10>에서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 유의확률 $p=0.849 > 0.05$ 이므로 Y(산업체 종사자 수 변화)와 x1(산업입지 이용), x2(유발효과 이용), x3(축제예산), x4(관람객 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은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11> 산업체 종사자 수 변화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B	S.E.	Wald	df	Sig.	Exp(B)
Step1	Z축제예산	9.201	3.963	5.392	1	.020	9910.606
	Z산업승수	-15.250	6.462	5.569	1	.018	.000
	Z기반산업	3.404	1.719	3.921	1	.048	30.086
	Z관람객수	-1.797	1.086	2.735	1	.098	.166
	Constant	-2.540	1.006	6.369	1	.012	.079
		Cox & Snell $R^2=0.449$					
		Nagelkerke $R^2=0.610$					

a Variable(s) entered on step 1: Z경제기반산업이용, Z산업승수효과이용, Z축제예산, Z관람객수.

<표 11>를 보면 모형 내에 있는 각각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이 아닐 때 Wald의 통계량을 통해 각각의 유의 수준 하에 판단하는데 축제예산, 산업승수효과 이용, 경제기반산업 이용, 관람객 수의 p값이 각각 0.02, 0.018, 0.048, 0.098로 90% 신뢰수준일 경우 α 값인 0.1과 비교해 볼 때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유의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 회귀모형에 의해 분류된 결과표

Observed		Predicted		
		Cluster Number of Case		Percentage Correct
		1	2	
Cluster Number of Case	1	20	1	95.2
	2	4	9	69.2
Overall Percentage				85.3

a Constant is included in the model.

b The cut value is .500

한편, <표 12>에서와 같이 적합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류한 값을 보면 관측값이 0인 경우 4개가 잘못 분류되었고, 관측 값이 1인 경우 1개가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85%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2.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논의

지역경제활성화 변수인 산업체 종사자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축제의 요인을 축제예산·산업승수효과 이용·경제기반산업 이용·관광객 수로 구분하고 이들의 인과관계 설명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결론적으로 지역축제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축제예산과 지역산업구조의 간접효과와 유발효과 및 경제기반산업의 비율 그리고 관광객의 수입을 확인 할 수 있었다.

$$\ln\left(\frac{E(Y)}{1-E(Y)}\right) = -2.54 + 9.20x_1 - 15.25x_2 + 3.40x_3 - 1.79x_4 \quad (\text{수식 } 5)$$

$E(Y)$ = Y가 1의 값을 취할 확률

x_1 = 표준화된 축제예산

x_2 = 표준화된 산업승수효과 이용

x_3 = 표준화된 경제기반산업 이용

x_4 = 표준화된 관람객 수

(수식 5)의 해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변수의 유의 정도를 파악한 후 유의한 변수의 설명력인 계수의 해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할 수 있다. b(계수)의 해석은 다른 독립변수들의 수준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해당 독립변수를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exp(b)$ ³⁾ 만큼 평균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만약 $b = 2.0$ 이라면 독립변수를 한 단위 증가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 비해 $\exp(2.0)$ 배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용규, 2000; 강병서·김계수, 2003). 가설검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x_1 의 설명력인 계수에 의해 축제예산의 설명력을 해석할 수 있다. 우선 독립변수인 x_1 은 p값이 0.020으로 유의한 값을 갖는다. 계수 또한 9.201로 독립변수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계수의 해석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유발효과 이용을 한 단위 증가 했을 경우 $\exp(9.201)$ 를 갖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수들이 표준화한 Z score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한 단위 증가한다는 점은 표준편차인 만큼 증

3) $\exp(b)$ 는 지수상수인 e의 b제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수상수인 e의 근사값이 2.718이므로 $\exp(2)$ 는 $2.718^2 = 7.387$ 과 가까운 수라 할 수 있다.

가 했다는 의미이다. 즉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 할 확률에 비해 경제적 효과(산업체 종사자 수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확률이 $\exp(9.201)$ 배 증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예산을 증가시킬 수 없듯이 제한된 예산 하에서는 다른 요인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따른 유발효과 및 간접 효과인 승수효과는 생산유발계수로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승수효과를 적절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관람객의 소비 흐름도 축제예산의 쓰임새에 따라 변한다는 가정 하에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x_2 의 계수에 의해 설명된다. 우선 독립변수인 x_2 은 p값이 0.018로 유의한 값을 갖으나 계수가 -15.25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계수의 해석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유발효과 이용을 한 단위 증가 했을 경우 $\exp(-15.25)$ 를 갖는다는 점으로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 할 확률에 비해서 경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있을 확률이 0에 가깝다는 것이다. 즉 독립변수인 유발효과 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 한 변수로서 작용하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집단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산업승수효과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산유발계수를 추정하는 산업연관표 작성은 매년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작성이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2000년도 수치가 적용되었다. 더구나 지역별 산업연관표가 아닌 전국기준의 산업연관표가 작성이 되므로, 본 연구에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지역별 생산유발계수는 추정된 수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추정된 생산유발계수도 광역지역별 생산유발계수이어서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하지는 못한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한편 또 다른 변수인 경제기반산업 이용은 제한된 자원을 타 지역에 비해 유리한 산업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기반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LQ값을 이용하였다. 경제기반산업의 이용이 기반산업을 더욱 견고히 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과 더 나아가 지역축제가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축제를 진행하게 함으로서 간접적으로는 축제 관람객을 많이 끌어 모온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x_3 의 계수에 의해 설명 할 수 있다. 우선 독립변수인 x_3 은 p값이 0.048로 유의한 값을 갖는다. 또한 변수의 설명력인 계수가 3.404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계수의 해석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유발효과 이용을 한 단위 증가 했을 경우 $\exp(3.404)$ 를 갖는다는 점이다. 즉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 할 확률에 비해 경제적 효과(산업체 종사자 수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확률이 $\exp(3.404)$ 배 증가 한다는 것이다.

지역축제의 성공여부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척도는 지역축제에 참가한 관람객 수이다. 축제 참가자의 소비지출에 의해서 지역에 투입되는 새로운 창출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축제참가자를 나타내는 x_4 는 p값이 0.098로서 90% 신뢰수준일 때 유의하다. x_4 의 계수 값 역시 -1.79로 낮은 확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변수의 계수가 낮은 이유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관람객 수가 아닌 이들 관람객의 소비인 지출정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2001년도 지역축제평가서에 의하면 산업형 및 비산업형 소재의 축제는 그 관람객의 소비에도 차이를 보여 산업형 축제가 평균 두 배 가까운 소비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의 결과 지역축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축제예산과 더불어 지역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경제기반산업을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축제예산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변수인 산업체 종사자 수의 변화에 가장 설명력이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지만 무한히 축제예산을 증가시킬 수만은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경쟁우위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경제기반산업의 이용이 의미 있는 변수로서 설명된다. 즉 제한된 축제예산의 사용에 있어 경제기반산업을 이용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지역축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축제의 개최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편 예상과는 달리 산업승수효과 이용과 축제참가관람객 수의 경우 설명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산업연관표가 5년 단위로 작성되고 이 역시 광역지역별로 추산되기 때문에 본연구의 대상인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축제 관람객 수의 경우도 그들의 지출에 의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이유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된 18개 지역은 표본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산업승수효과이용과 축제 관람객 수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축제의 효과에 대해 계량적 분석시도를 함으로서 일반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고숙희. (1999).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의 경제적 효과: 단양온달문화축제의 분석. 『한국행정학보』, 33(2): 199-215.
- _____. (2000).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의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 파급효과 분석: 단양군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0(2): 289-308.
- 권기철 역. (1997). 『지역경제이론과 정책』. PUFS.
- 김기홍·장태구·이재은·조옥현. (1996). 『도시 및 지역경제학』. 진영사.
- 김병철. (1998). 『강원도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강원개발연구원.

- 김선기. (2003). 『향토자산활용 지역축제의 마케팅 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창근. (2000). 문화관광축제운영의 활성화 연구. 『산업연구』, 13: 359-382.
- 김현민. (1992). 수도권 도시의 경제성장 분석: 도시산업개발 정책방향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27(2): 359-380.
- 문화관광부. (2004). 『2004년 시·도별 축제 개최 현황』.
- 박경귀. (2002). 문화정책의 집행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세계축축제’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4): 1-24.
- 박용규. (2000). 통계시리즈(IX): 로지스틱 회귀분석. 『가정의학회지』, 22(7): 1007-1019.
- 이강욱. (1997). 『문화관광축제의 영향 및 운영효율화 방안』. 한국관광연구원.
- 이희욱. (200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내고장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대구·경북 지역문화축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1(1): 1-18.
- 인제빙어축제위원회. (2000). 2000년 인제빙어축제 결산보고서. 인제군.
- 임학순. (1996). 지방문화발전의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 11(3): 19-37.
- 전도일. (2003). 『지역경제학의 이해』. 교우사.
- 조병훈. (2000). 19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행정논집』, 12(4): 763-780.
- 한국은행. (2000). 『2000년 산업연관표작성보고서』.
- 홍순영·김갑성. (1995). 지방자치와 지역특화산업. 삼성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홍준현. (1997).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력산업선정 방법론. 『정책분석평가학회보』, 7(1): 129-152.
- Arclus, F. (1984). An Extension of Shift-Share Analysis. *Growth and change*. 15: 3-8.
- Armstrong, H. W. & Taylor, J. (1983). Unemployment Stocks and Flows in the Travel-to-Work areas of the NW region, (1970-1980). *Urban studies*.
- _____. (1997). *Regional Economics & Policy*. PUFs.
- Barney. J. (1997). *Gaining and Sustaining Competitive Advantage*, Addison - Wesley Publishing Company.
- Chapman, D & Cowdell. T. (1998). *New Public Sector Marketing*, Financial Times.
- Getz, D. (1991).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 Joseph F. Hair, Rolph E. Anderson, Ronald L. Tatham, William C. Black.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Prentice-Hall, Inc.
- Klosterman, Richard E. (1990). *Community Analysis and Planning Technique*,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Seymour H. Fine. (1990). *Social Marketing*. Allyn and Bacon.

金成鉉: 중앙대학교에서 정책학 전공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논문: 지역축제의 지역경제활성화 영향분석, 2004), 현재에는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공공정책, 정부마케팅, 지역분석, 지역개발, 행정철학 등이며 연구논문으로는 “일본의 민자유치(PFI)의 재조명”(2001), “지역축제의 지역경제활성화 영향분석”(2005), “지역축제의 마케팅 전략 연구”(2005) 등이 있다(hicloud01@naver.com; hicloud01@wm.cau.ac.kr).